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에 관한 연구

배 재 권<sup>1)</sup>

## The Effects of Prudent Finance Regulation Indexes on Internet Primary Banks

Jae Kwon Bae<sup>1)</sup>

요 약

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이 2010년에 확정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바젤III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 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증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바젤III(Basel III),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규제, 인터넷전문은행

### Abstract

Basel III (Third Basel Accord or Basel Standards) is a global, voluntary regulatory framework on bank capital adequacy, stress testing, and market liquidity risk. Basel III regulatory ratios include capital adequacy, asset soundness, and liquidity. The capital adequacy variables include BIS capital adequacy ratio, BIS tier 1 capital ratio, and tangible common equity ratio. The asset soundness variables include non-performing loan ratio and non-performing loan coverage ratio. The liquidity regulation variables include KRW liquidity coverage ratio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coverage rati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capital adequacy standard affects efficiency of internet primary banks. As a result of this study, BIS capital adequacy ratio of domestic internet primary banks is lower than that of commercial banks. In order to maintain sustainable operation considering capital adequac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additional capital. In addition, the delinquency rate and non-performing loan ratio of domestic internet primary banks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the maturity of high-yield loans in 2019.

Keywords : Basel III, Capital Adequacy, Asset Soundness, Liquidity Regulation, Internet Primary Banks

## 1.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III(Basel III)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젤III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이 2010년 9월에 확정된 은행자본 규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이다. 바젤 III는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스트레스 검정(stress testing), 시장유동성 위험(market liquidity risk) 등을 표준화하는 은행자본의 건전화방안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규제개혁안이다[1]. 2018년에는 바젤III 개편안(자본비율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변경)이 최종 승인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다. 대표적인 바젤III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으로 구성된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이하 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BIS tier 1 capital ratio, 이하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tangible common equity ratio, 이하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non - performing loan ratio, NPL)과 대손충당금적립률(NPL coverage ratio)이 있다.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등으로 구성된다[2].

바젤III에 따르면 현재 기준인 바젤II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비율(8%)은 그대로 두되 현행 4% 이상인 기본자본비율(Tier 1)을 2013년 4.5%에서 2019년까지 6%로 높여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신용호황기 때 추가로 보완자본(자본보존완충자본) 명목으로 2.5%의 자본을 더 축적해야만 한다. 바젤III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까지 시중은행 및 지주사는 BIS총자본비율을 14%이상 유지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지주사로 전환했거나 지주자 전환 계획으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등 증권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은행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케이뱅크(K Bank)와 한국카카오은행(Kakao Bank of Korea)은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로 인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KT와 카카오 등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여 설립하였으나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대주주는 현재 기존 금융권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노하우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이 2018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분율이 변화되면 자본확충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재무건전성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바젤I(자기자본비율 8%이상 유지)을 적용받고 있지만 2020년에는 바젤III 시행으로 인해 8%이상의 자기자본비율과 6%이상의 기본자본비율, 그리고 4.5%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젤 I과 바젤III의 규제비율과 이들 측정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prudent finance regulation indexes)를 정의한다. 둘째,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그리고 유동성 규제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 2.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분석

케이뱅크(K Bank)는 2017년 4월에 KT가 주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2,500억 원의 자본금(3차 증자후 5,000억원)으로 21개 사의 주주사가 출자하였으며,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0.0%), NH투자증권(10.0%), GS리테일(10.0%), 다날(10.0%), 한화생명보험(10.0%), KT(8.0%), KG이니시스(8.0%) 등으로 구성된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최대 10%, 의결권 4%)로 인해 우리은행(지분율 10%)이 최대주주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공격적인 대출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한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2018년 6월말 기준 수신은 1조 5,300억원, 여신은 1조 1,300억원이며 고객 수도 2017년말 대비 62만명에서 75만명으로 늘어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카카오은행(Kakao Bank of Korea, 이하 카카오뱅크)은 2017년 7월에 설립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자본금 3,000억원)으로 주요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기존10%, 유상증자 18%), 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등 9개의 주주사가 출자하였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9월에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8년 4월에 추가로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납입자본금(자기자본)이 1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8월말 기준 수신 금액이 9조원, 여신 금액이 7조 4,780억원 규모로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도 2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케이뱅크에 비해 10배가 큰 10조 1,538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이후 모바일 banking 사용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무건전성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은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당기순실액 발생 등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년 2분기 케이뱅크의 대출 연체율은 1분기보다 2.5배 상승한 0.44%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8년 1분기 0.12%에서 2분기 0.22%로 상승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이들 지표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증자를 통해 정상대출 비중을 높이지 못하면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것은 향후 대손비용률도 높아지게 된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증자가 어려운 점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8년 상반기(1-2분기) 기준으로 3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케이뱅크는 대출자산 성장의 부진과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낮은 이자부문, 영업활동 부진, 그리고 대출 만기 도래 고객의 늘어나는 연체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다. 특히 케이뱅크는 총 자산 대비 판매비·관리비 비율(5.6%)이 카카오뱅크(1.3%)보다 4배 이상 높아 향후 실적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2018년 2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0.06%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08%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 3분기에는 케이뱅크처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상반기(1-2분기) 기준으로 1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다. 카카오뱅크는 자동입출금기(ATM) 및 포인트 수수료 비용, 판매비·관리비,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리비를 줄여 적자폭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바젤 규제비용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강화된 예대율 규제와 리스크 관리,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통합관리 제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19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유상증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KT와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표 1]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주요 경영지표(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원, %)

[Table. 1] Prudent Finance Regulation Indexes of Internet Primary Banks and Commercial Banks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총자산	18,000	96,596	3,982,835	3,828,374	3,538,827
당기순이익(순손실)	-395	-120	13,318	11,190	12,048
BIS총자본비율	10.71	16.85	15.92	16.18	15.26
고정이하여신비율	0.22	0.08	0.2	0.28	0.24
연체율	0.44	0.06	0.25	0.25	0.31
순이자마진	2	2.03	1.71	1.62	1.51

출처: 각 은행 정기 경영공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 3.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 분석

#### 3.1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적정성 분석

건전성감독지표(Prudent Finance Regulation Indexes)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요소는 자본적정성 관련 변수(capital adequacy variables)이다. 자본적정성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배경은 규제가설(regulatory hypothesis)이다. 규제가설은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수준을 감시하고 은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최소자본이 은행자체의 비체계적인 위험이나 시장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3].

자본적정성의 대표적인 측정항목으로는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BIS기본자본비율(BIS tier 1 capital ratio), 단순자기자본비율(tangible common equity ratio, 보통주자본비율)로 구성된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의 범위에 기본자기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과 재평가적립금, 후순위채 발행 등 보완자본, 그리고 영업권 및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등 공제항목이 포함된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구하며, 총자산을 산정할 때는 투자대상별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총자본/위험가중자산). 즉, 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BIS기본자본비율은 기본자본(core capital)만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로 이 비율이 8%이상이면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기본자본은 자기자본 구성에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이 되는 자본만 포함된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금융회사 내 이익잉여금을 늘려 자본을 높이면 BIS기본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 중심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하며, 보통주라는 순수 자기자본만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자본적정성 측정항목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표이다[4].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바젤I(BIS자기자본비율 8%이상 유지)을 적용받고 있으나 바젤III 시행되는 2020년에는 14%이상의 BIS총자본비율과 10.5%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표 2] 은행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바젤III 적용대상, 2018년 3월말 기준)

[Table. 2] BIS Capital Adequacy Ratio of Commercial Banks(As of the End of March 2018)

	신한	KEB하나	KB국민	DGB대구	NH농협
총자본비율	16.04%	16.21%	15.81%	14.74%	15.21%
기본자본비율	13.37%	13.99%	14.90%	12.94%	12.49%
보통주자본비율	13.04%	12.93%	14.52%	10.25%	10.53%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표 3] 은행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바젤I 적용대상, 2018년 3월말 기준)

[Table. 3] BIS Capital Adequacy Ratio of Internet Primary Banks(As of the End of March 2018)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한국투자
자기자본비율	13.48%	10.96%	15.08%
기본자본비율	12.97%	10.63%	14.52%
보통주자본비율	12.57%	10.26%	14.52%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바젤III 적용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바젤III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2018년 3월말 기준 신한은행(16.04%), KEB하나은행(16.21%), KB국민은행(15.81%) 등 5대 시중은행의 BIS총자본비율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3]과 같이 2018년 3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3.48%에서 6월말 기준 10.71%로 떨어져 국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주도자인 KT가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원인이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9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약 24%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3월말 기준 10.63%로 하락하였고, BIS자기자본비율도 10.96%로 나타나 시중은행 평균대비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에 1,045억원의 당기순손실과 2018년 상반기 53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적정성 관리는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향후 지속된 적자와 빠른 자산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바젤III 규제 비율을 상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3.2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건전성 분석

자산건전성이란 여신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실여신 규모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non - performing loan ratio, NPL)과 대손충당금적립률(NPL coverage ratio, NCR)이 있다[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무수익여신 또는 부실여신비율이라고 불리우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건전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은행의 대출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구성된다.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손충당금 또한 늘어나게 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 대출액(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을 뜻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하반기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

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2018년 1분기 0.17%에서 2분기 0.44%로 상승하였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8년 1분기 0.12%에서 2분기 0.22%로 상승하였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2018년 1분기 0.03%에서 2분기 0.06%로 상승하였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18년 1분기 0.04%에서 2분기 0.08%로 상승하였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하지만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 3분기에는 케이뱅크처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4]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2018년 6월말 기준)

[Table. 4] Non-Performing Loan Ratio of Internet Primary Banks(As of the End of June 2018)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연체율	1분기: 0.17% 2분기: 0.44%	1분기: 0.03% 2분기: 0.06%
고정이하여신비율	1분기: 0.12% 2분기: 0.22%	1분기: 0.04% 2분기: 0.08%
대손충당금적립률	352.00%	398.63%
중금리대출 비율	전체 대출의 60% (4~10등급 중저신용자)	전체 대출의 38.6%
BIS자기자본비율	10.71%	16.85%
당기순손실	395억원	120억원

출처: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연체율의 정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한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공식 충당금 적립액 대비 고정이하여신으로 산출이 가능하다(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은행의 부실여신에 대비한 부실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적립금액이 많다는 것은 보유자산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위험 흡수능력 증가로 인하여 결국 은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초기 공격적으로 판매한 신용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2018년 6월 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은 352.0%이고, 카카오뱅크는 398.63%이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지주의 평균 대손충당금적립액은 약 114.75%로 나타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조달 원가가 높은 데다 중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손비용 증가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3.3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분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은 은행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건전성감독지표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고(高)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고(高)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의미한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을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바젤III에서 도입되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구분된다. 시중은행들은 원화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이원화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만 규제받고 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뱅크런(bank run, 대량 예금 인출사태)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국내 시중은행의 2018년 1분기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살펴보면 신한은행(98.6%), KB국민은행(100.6%), KEB하나은행(102.1%), 우리은행 (119.3%), 씨티은행(128.5%)로 바젤III 기준(2015년 60%, 2019년 100%로 높여야 함)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2015년 바젤III 유동성 규제 도입 이후 4년간 매년 10%씩 상향하여 2019년 이후 100%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동성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금이나 국공채 등 고(高)유동성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5]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상위 순, 2018년 3월말 기준)

[Table. 5] KRW Liquidity Coverage Ratio(As of the End of March 2018)

구분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케이뱅크	585.0%
카카오뱅크	241.6%
씨티은행	128.5%
DGB대구은행	127.5%
BNK경남은행	119.8%
우리은행	119.3%
KEB하나은행	102.1%
기업은행	102.1%
KB국민은행	100.6%
신한은행	98.6%
시중은행 평균	111.7%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2018년 1분기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각각 585.0%, 241.6%로 시중은행 평균(111.7%)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설 은행이라고 (高)유동성 자산 위주의 자금운용과 소매금융(리테일) 위주의 여·수신 포트폴리오 특성으로 인해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에 국채, 금융채, 공사채 등 유동성 레벨1 수준(할인율 0%)의 유가증권을 5,000억 원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고(高)유동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중요하다.

#### 4. 결론

규제압력가설(regulatory pressure hypothesis)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소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에 근접할 경우 혹은 금융위기 기간일 경우 규제 및 감독기관은 은행의 이익을 유보하여 자본을 확충하도록 압박하게 된다[6]. Shrieves and Dahl[7], Aggrawal and Jacques[8], 그리고 Hovakimian and Kane[9]의 연구에서는 은행의 효율성은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적절한 자본적정성 규제는 은행대출에 대한 부패 가능성을 줄이고, 중개기관(intermediaries)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결국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바젤 I과 바젤III의 규제비율을 이해하고, 건전성감독지표 중 자본적정성, 자산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 규제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을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통과로 인해 지분율 상한선이 4%에서 34%로 높아지면서 과감한 투자와 사업확장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둘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초기 공격적으로 판매한 신용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중금리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3분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증자 등 자기자본 확충에 집중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연체관리로 부실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RMS) 고도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규모가 작고 예수금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유동성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 속에서 높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공채를 매입하면 차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원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바젤Ⅲ의 규제비율과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효율성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가설검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건전성 규제 지표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4가지 측정항목으로 나누어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효율성 상호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G. E. Chortareas, C. Girardone, and A. Ventouri, Bank Supervision, Regulation, and Efficiency :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012), Vol. 8, pp.292-302.
- [2] O. Havrylchyk, Efficiency of the Polish Banking Industry : Foreign Versus Domestic Bank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006), Vol. 30, pp.1975-1996.
- [3] J. R. Barth, J. G. Caprio, and R. Levine,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004), Vol. 13, pp.205-248.
- [4] G. Gorton, and R. Rosen, Corporate Control, Portfolio Choice, and the Decline of Banking, *Journal of Finance*, (1995), Vol. 50, No. 5, pp.1377-1420.
- [5] J. P. Hughes and L. J. Mester, Bank Capitalization and Cost : Evidence of Scale Economics in Risk Management and Signaling,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1998), Vol. 80, No. 2, pp.314-325.
- [6] J. F. Abreu and M. A. Gulamhussen, Dividend Payouts: Evidence from U.S. Banking Holding Companies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013), Vol. 22, pp.54-65.
- [7] R. E. Shrieves and D. Dahl,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Capital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992), Vol. 16, No. 2, pp.439-457.
- [8] R. Aggrawal and K. Jacques, Assessing the Impact of Prompt Corrective Action on Bank Capital and Risk, *Economic Policy Review*, (1998), Vol. 4, No. 3, pp.23-32.
- [9] A. Hovakimian and E. J. Kane, Effectiveness of Capital Regulation at U.S. Commercial Banks, 1985 to 1994, *The Journal of Finance*, (2000), Vol. 55, No. 1, pp.451-468.
- [10] T. Beck, A. Demircuc-Kunt, and R. Levine, Bank Supervision and Corruption in Lending,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06), Vol. 53, No. 8, pp.2131-2163.